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각국 주요 언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도박'으로 몰락을 자초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외신은 특히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이었다고 지적하며 탄핵안 통과에도 당분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의 몰락을 결정지었나'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품위 있는 퇴진'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마다하고 비상계엄 도박의 판돈을 키우는 쪽을 선택해 몰락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이후 질서 있는 퇴진을 전제로 국정을 수습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합법적 통치 행위로 정당화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 치명타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1%로 추락했고 보수 언론조차 등을 돌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스스로의 행동이었다"며 "계엄 도박이 결국 야당이 오랜 기간 탄핵을 위해 찾아온 '스모킹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을 제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디언은 윤 대통령에 대해 대선 승리 시점부터 이미 '분열을 조장하는 인물'이었으며, 임기 초부터 권위주의적 경향을 보여왔다고 평가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젊은 남성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고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명품백 수수와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의 상당 부분이 김 여사 문제에서 촉발됐다는 것이다.

또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처도 정권에 타격을 줬고,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겪은 청년층이 탄핵 촉구 시위의 주축이 됐다고도 분석했다.

외신은 탄핵안 가결에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소식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야당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일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NYT도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전망했다.

NYT는 북한의 핵 위협 증대에도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소식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야당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일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NYT는 북한의 핵 위협 증대에도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소식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야당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일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BBC도 한 총리와 권한대행 2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계엄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에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에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에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에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에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에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 美교민들 “국민의 승리”...“이젠 화합해야”

“더 나은 민주주의 위해 겪은 아픔의 시간...고국 시민들에 감사”  
“트럼프 출범 앞 비상상황 걱정...한국 민주주의 살아 있음 증명”

미국 교민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한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며 반겼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다음 달 20일)이라는 거대한 대외 변수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버지니아주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권용훈(62) 씨는 “계엄사태로 우리 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는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겪은 아픔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고국의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한국 사회가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또 버지니아주에서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교민 장용범(64) 씨는 “윤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자질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한 후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고 평했다.

장 씨는 “(탄핵소추안 가결은) 좀 쓸쓸하기도 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보수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인데, 한국 내 보수 성향 지지자 중에 자괴감을 느끼고 극우화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조지아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한미우호협회를 맡고 있는 박선근(82) 씨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 등을 생각할 때 “걱정스럽다”면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미국에 온 지 50년이 됐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의 중대 위기라고 할 만한 소용돌이가 대략 7차례 정도 있었다”면서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절망도 했지만 잘 이겨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성은 슬기로운 면이 많아 앞으로는 최악의 상황으로 쉽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단 탄핵안이 가결됐으니 이젠 화합하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앞서 탄핵 촉구하는 미교민들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교민들이 집회를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즉각 체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美, 탄핵에 “韓 민주적 회복력 높이 평가”

NSC “美 국민, 한국 국민과 계속해 어깨 나란히 할 것”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회의(NSC)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같이 언급했다.

NSC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요르단에서 진행된 한

독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탄핵소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